

홀트소식

SUMMER 2023 VOL.209





여름 이야기

정성 들여 쓴 자신의 한글 이름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는 권은자 임양인(72세, Nancy). '서울 시스터즈' 모국방문단 중 가장 연장자인 그녀는 '임양'이라는 기회를 통해 행복과 사랑을 얻었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9쪽)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가족을 찾아주고

- 04 입양을 둘러싼 논란, 그 실체적 진실
- 06 삼남매의 운명을 바꾼 홀트씨의 편지 한 장
- 09 다시 찾은 한국은 제가 태어난 나라, 바로 '홀랜드'입니다
- 10 홀로된 입양대기아동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산 지 20년

가족을 지켜주고

- 12 "앞으로 웃으며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 14 배움과 도전으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 17 "우리가 먼저 다가가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줄게"

가족이 되어주는

- 18 초경의 당혹스러움을 '성장의 설렘'으로
- 20 파랑새, 날개를 펴 날아오를 준비를 하다!
- 23 사회를 향해 내딛는 네팔 여성들의 당당한 발걸음
- 24 최고의 어린이날을 위해 준비한 5월의 특별한 선물

나눔 스토리

- 25 몽골 아이들에게 전해진 나눔의 기쁨
- 26 홀트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소중한 후원자들과의 특별한 하루
- 28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 방' 팬덤 기부 1호 탐리더스 위촉
- 30 한뼘한뼘 서툰 바느질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큰 발걸음으로

32 HOLT NEWS

통권 | 209호 · 계간 발행일 | 2023년 7월 20일 발행인 | 김정오 편집인 | 신미숙
발행처 |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73~6 홈페이지 | www.holt.or.kr
좋은 사연 · 좋은 제언 | plan@holt.or.kr 디자인 | 알투디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사 정용근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린다백 (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티브 모리스 (한국임양홍보회 이사)
감 사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 (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장애인복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학교 031)915-2913

지역사회복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춘천시가족센터 033)251-8014

아동보호·보육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들 042)585-3004
고운들 031)216-9004
아름들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심리상담센터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02)331-7053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홀트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홀트에 첫발을 디뎠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40여 년이 지나 회장이라는 직무를 맡게 되니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홀트의 미션과 비전이 너무 좋아 그 길을 따라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68년 전 설립자 홀트씨 부부의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실천 이념 아래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로 시작된 홀트는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고, 국내 전역에 지역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 미혼모자복지시설, 심리상담센터 등을 세워 우리 사회 곳곳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 몽골, 네팔, 탄자니아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 빈곤가정 자립을 돕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홀트의 미션과 비전인 '사랑을 행동으로'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한 다'를 실천하기 위해 추진해온 여러 일들을 앞으로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을 찾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잘 살펴 홀트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 홀트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회복된 이웃들이 다시금 세상을 향해 또 다른 홀트의 사명을 전하는 선순환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홀트의 귀한 사업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많은 후원자님들과 자원봉사자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의 행보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홀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신미숙

입양을 둘러싼 논란, 그 실제적 진실 : 입양 실무를 중심으로

국회 해외입양 콘퍼런스 사례발표



▲ 사례발표 중인 손윤실 본부장

지난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의 해외 입양, 왜곡된 인식 너머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국회 해외입양 콘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입양 인식개선과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해외입양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콘퍼런스에서 우리회는 ‘입양을 둘러싼 논란, 그 실제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합니다.

아동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입양업무 수행

입양은 슬픔, 불안, 기쁨과 감동, 회한이 공존하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친생부모와의 이별, 입양가족과의 만남, 위탁모나 친가족과의 상봉 등 전 생애에 걸친 전문적 복지 서비스는 ‘입양’이 유일할 것입니다.

입양 정책과 법체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발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입양 실무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왔습니다. 현재의 잣대로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들이 있겠으나, 입양기관은 미비한 시스템 하에서도 아동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입양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입양수수료’와 ‘고아호적’ 등 해외입양을 둘러싼 근거 없는 논란에 대하여 입양 실무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며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논란!! - 입양수수료

입양수수료는 아동 한 명당 입양절차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과 달리 ‘입양’은 중요한 아동복지분야임에도 사업대상자인 입양부모로부터 비용을 받아 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및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입양은 2007년부터 입양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국외입양은 현재도 업무협약을 맺은 국외협력기관에서 자국의 입양부모에게 비용을 받습니다. 한국의 입양기관은 국외 입양부모로부터 직접 비용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국외 협력기관에서 자국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국내기관에 송금한 입양비용은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고 발행한 영수증은 해당 협력기관에 보냅니다. 국외협력기관 협약서에도 입양수수료 내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협약을 체결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입양기관의 모든 세입은 통장과 증빙서류, 장부 등이 일치하며 매년 법인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지도점검도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자산입니다. 부동산 취득과 처리 등 모든 사안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입양 공공성 강화 위한 입양비용 개선 필요

2020년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입양기관 비용지원체계 개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 1인당 입양비용 추계액의 경우 국내입양은 2,456만원, 국외입양은 2,529만원으로 보아 실제 아동 1인당 입양비용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이 입양비용 적정수준을 검토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입양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입양기관은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추가된 업무를 진행하며 크게 하회하는 비용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 마련보다는 ‘입양수수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마저 감수해왔습니다.

입양수수료에 대한 왜곡된 보도처럼, 만약 입양기관이 수수료를



▲ 해외입양 콘퍼런스 사례발표에 참여한 패널들

위해 해외입양을 지속하는 것이라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양기관 직원 역시 성과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양기관 직원들은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아왔으며 타 사회복지기관과 다를 바 없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두 번째 논란!! - 호적 창설



해외입양을 보내기 위해 호적이 있는 아동을 고아로 만들어 가짜 호적을 창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호적이 없는 아동의 단독호적을 창설하는 것은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입양 실무였습니다.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 입양대상 아동의 대부분은 친생부모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무적아동이었습니다.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을 의뢰하거나, 시설에 보호되었다가 시설장의 동의로 입양을 의뢰합니다. 이때 입양기관장이 후견인이 되어 아동의 단독호적을 창설해야 보건복지부 이주허가와 이민국 비자 같은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란 - 입양기록 공개 및 뿌리찾기



입양기관은 입양상자(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를 위한 사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 제36조에 의해 입양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동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양기관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사실

을 친생부모에게 알리고 입양 당시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가 있어 연락이 되어도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입양인과의 상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입양인이 친부모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입양기관은 남겨진 친생부모 정보를 토대로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적 체계의 보완을 통해 입양상자를 위한 최선의 입양정보공개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입양기관의 소극적인 정보 제공 때문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도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4개 입양기관 어느 곳도 입양서류 조사요청 공문을 받은 곳이 없습니다. 입양기관 모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해외입양이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고귀한 아동복지라는 사실은 침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입양 문화에 부정적 편견을 덧씌우려는 행위가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 ‘입양’이고, 모든 아동이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입양’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글 복지사업본부장 손윤실

삼남매의 운명을 바꾼 홀트씨의 편지 한 장



한 가정에 입양된 해외입양인
삼남매의 감동 스토리



▲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해리 홀트씨와 함께한 삼남매

5월의 어느 날, 우리 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1961년 우리 회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입양된 해외입양인 삼남매(김효순·김복순·김효경)와 그들의 막냇동생 이란씨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그들의 첫마디는 홀트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연이 특별한 이유는 해리 홀트씨와의 인연으로 같은 양부모님 가정에 입양되어 축복 속에 자라났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 남겨진 막냇동생과의 상봉 스토리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 오른쪽부터 첫째 김효순씨의 남편 제프 밀러씨, 첫째 김효순(75세)씨, 둘째 김복순(69세)씨, 셋째 김효경(68세)씨, 막냇동생 이란(65세)씨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당부가 꼭 동생들을 잘 돌보라는 것이었어요.” 입양 당시 열네 살이었던 맏이 김효순(미국 이름: Miriam Miller)씨는 어머니의 그 당부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1959년 결핵으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두 달 만에, 그것도 막내 여동생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이들 삼남매는 그야말로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당시 충주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던 간호사 출신의 원장님이 삼남매 모두를 품을 수 없자, 갓난아기인 막냇동생만 보호하고 위로 삼남매는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보냈습니다. 그후 막냇동생은 한국의 어느 가톨릭 가정에 입양되어 이란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삼남매가 홀트일산복지타운에 입소한 지 두 해째 되는 1961년, 효순·복순 자매의 해외입양이 결정되자, 효순씨는 딸 둘만 입양하기를 원하는 예비 입양부모님에게 남동생도 같이 입양해달라고 간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 끝에 홀트의 설립자 해리 홀트씨께 그 간절한 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달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존경스러운 입양부모님에 대한 기억

입양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묻자, 삼남매는 “돈독한 기독교 신앙을 지닌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들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입양 당시에 그분들에게는 이미 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친자들과 전혀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축복받은 삶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입양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삼남매의 막냇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란씨의 입양부모님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해오셨다는 점만 봐도 그분들이 삼남매를 얼마나 애정으로 돌봐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양어머니는 1978년 48세의 이른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양아버지와 선교사였던 둘째아들도 세상을 뜨고 현재 입양부모님의 첫째 아들만 생존해 있는데 지금도 한 동네에 살며 서로 돈독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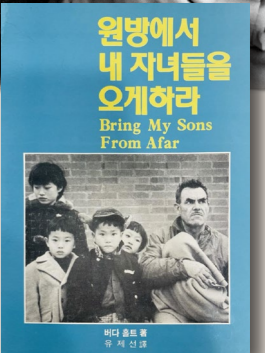
여전히 티격태격하는 삼남매지만, 두 동생에게 맏이 효순씨는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복순(Ruth Kim Leusink)씨는 “엄마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늘 언니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가장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이자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언니”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 삼남매의 입양부모님 및 그 형제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 맨 왼쪽 위가 첫째 김효순씨, 바로 아래가 셋째 김효경씨, 해리 홀트씨 옆 뒤쪽에 얼굴만 나온 이가 둘째 김복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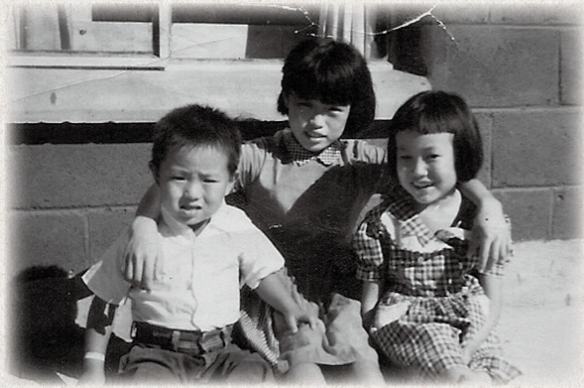


▶ 바다 홀트 여사가 집필한 『원방에서 내 자녀들을 오게 하라』(1989년) 표지에 해리 홀트씨와 함께 실린 입양 직전의 삼남매 모습

한국에 남겨진 막냇동생과 상봉하기까지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언니가 저를 만나러 한국에 온다고 하자, 그제야 양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의 입양 사실을 말씀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란씨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이 집 친딸이 아니구나’를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우연히 앨범에서 우리나라 사진과는 사뭇 다른 고급스러운 사진 한 장을 발견한 이란씨. 사진 속에는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검은 드레스를 입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자신의 언니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나랑 닮은 거예요. 그 사진을 살짝 빼서 잘 때도 베갯잇 속에 넣어 간직하곤 했죠.”

1979년, 꿈에도 그리던 동기간과 처음 상봉했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반가움과 감격스러움에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로 자주 왕래하며 그 자손들까지 혈육의 정을 나누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 홀트일산타운으로 가기 전 녹번동 시설에서 찍은 사진

3대에 걸친 홀트와의 인연

삼남매와 홀트의 인연은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효순씨의 장남 내외가 홀트를 통해 딸 클로이(18세)와 아들 벤자민(16세)을 입양했던 것이죠. 또한 복순씨의 아들은 한국인 아내를 맞이해 모국과의 끈을 다시 연결했구요. 특히 한국 방문이 네 번째인 효순씨는 현재 홀트일산타운에서 생활하는 뇌성마비 장애인 영희씨(76세)와의 특별한 인연을 전해주었습니다. 효순씨와 영희씨는 어릴 적 일산타운에서 같이 생활하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낸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효순씨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헤어지게 되었지만 어린 시절의 인연으로 효순씨는 남편인 케프씨와 2018년에 일산타운에서 6주간 봉사활동을 하며 영희씨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삼남매에게 입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입양인들을 만나 보니 그들의 경험이나 추억은 우리만큼 긍정적이지 않아 안타까웠다”는 셋째 효경(Philip Kim De Jong)씨는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입양인으로서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효순씨도 “홀트를 통해 축복받는 기독교 가정으로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형제들과 같이 지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멋진 남편도 못 만났을 테고 사랑하는 세 자녀와 네 명의 손자손녀들도 얻지 못했을 뻔했어요”라며 거듭 홀트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만약 우리가 따로 입양되었거나 헤어졌다면 평생 무언가를 갈구하는 결핍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복순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 입양이, 그리고 해리 홀트씨의 편지 한 장이 ‘운명을 바꾼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진행 및 통역 입양가정지원센터 정수영
글 전략기획팀 정진숙

▼ 첫째 김효순씨 남편과 4남매의 모습



다시 찾은 한국은 제가 태어난 나라, 바로 '홈랜드'입니다

'서울 시스터즈' 모국방문 웰컴백 스토리

지난 4월 19일~5월 2일, 주로 1세대 여성 입양인으로 구성된 'Seoul Sisters Homeland Tour 2023'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38명의 참가자 모두 다른 입양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양된 나라 미국에서 아내이자 엄마로, 또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랜만에 모국을 찾아 쉽고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모국 곳곳을 방문하며 반가움과 설렘으로 가득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홈랜드에서 '미래'를 응원하다

38명의 참가자들은 방문 기간 동안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입양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모국방문단에서 가장 연장자인 1951년생(72세, 미국 이름:Nancy) 권은자 입양인은 10세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시기에 입양되어 언어와 문화 등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권은자 입양인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연신 미소를 띠었습니다. 그러면서 “홈랜드인 이곳에 다시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입양’이라는 ‘기회’를 통해 얻은 ‘행복’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담담한 고백에 많은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홈랜드에서 각자의 행복과 사랑을 남긴 ‘언니’들은 짧은 2주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다음 방문을 기억해봅니다.

글 입양가정지원센터 정수영

홈랜드에서의 '과거'를 기억하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모국방문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현재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가 하면, 입양 기록물을 열람하며 감회에 젖기도 했습니다. 친생부모 정보가 없는 입양인들은 자신의 유전자 샘플 등록과 고아원 시설 방문 등의 일정을 보냈습니다.

홈랜드에서 '지금'을 경험하다

참가자들은 캘리그래피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한글에 서툰 글자의 획순도 천차만별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한 획씩 정성껏 써가며 어린 아이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소리내어 읽어 봅니다. 그리고는 되뇌어봅니다. 'This is my name.'

홀로된 입양대기아동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산 지 20년

제18회 입양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받은 임정옥 위탁모



지난 5월 11일, 제18회 입양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보장원 주최로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기리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20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입양대기아동을 양육해온 우리 회의 임정옥 위탁모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입양대기아동들을 돌보는 위탁모들의 숨은 노고를 살펴봅니다.



위탁모의 헌신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

우리 회의 양육을 포기한 부모와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입양대기아동이 신체·정서 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새로운 입양가정과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서 양육을 책임진 위탁모들은 아동이 입양 전까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대안양육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입양대기아동의 이익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양의 전 과정에서 위탁가정과 위탁모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위탁모의 헌신 없이 입양대기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입양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홀트에서의 20년, 감사하고 특별합니다”

임정옥 위탁모의 가정은 우리 회에서 손꼽히는 장기근속 위탁가정입니다. 2003년 우리 회의 위탁가정에 지원하여 현재까지 20년 동안 무려 46명의 입양대기아동들을 양육했습니다. 아기 한 명을 돌보기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임정옥 위탁모는 입양대기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고 보듬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임정옥 위탁모가 기른 수많은 입양대기아동들 중에는 의료적 문제 없이 평범하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여러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을 빈번하게 오가야 하는가 하면,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24시간 대기하며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정옥 위탁모는 의료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인 입양대기아동이 발생하여 입양담당자가 어렵게 의뢰할 때마다 늘 마다하지 않고 의뢰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동들이 건강을 되찾고, 입양부모를 만나 행복한 새 삶을 맞이할 때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우리아기들이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 임정옥 위탁모의 소감 한마디



Q. 임정옥 어머니, 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 동안 입양대기아동들과 함께해온 삶을 되돌아볼 때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고, 감회도 남다르실 텐데요,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뜻깊은 입양의 날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위탁모로 지낸 지도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네요. 우리 아기와 함께하며 힘든 날도 있었지만, 힘든 것을 다 잊을 만큼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가들 덕분에 매일 웃고 그 에너지를 받아 성격도 너그러워지고 우리 가족도 모두 즐겁고 행복했으니까요. 고맙고 예쁜 우리 아기들 아프지 않고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위탁모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임정옥 위탁모는 지난 20년 동안 홀로 된 입양대기아동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입양대기아동들의 밝은 미래와 시작을 응원하는 하나뿐인 엄마였습니다.

임정옥 위탁모를 포함하여 우리 회의 수많은 위탁모들은 보호가 필요한 입양대기아동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위탁모들의 사랑과 헌신이 오늘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탁모에게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리며, 입양대기아동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홀트아동복지회의 모든 위탁모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 임양팀 이정미



"앞으로 웃으며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지원사업으로 건강 찾은 은호와 엄마

우리회는 취약계층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비·주거비·의료비·심리지원비·교육비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통합위기가정 지원사업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약 90가정이 이 사업을 통해 긴급 지원을 받아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중 항암치료를 받은 엄마와 심장질환을 앓으며 재활에 힘쓰고 있는 은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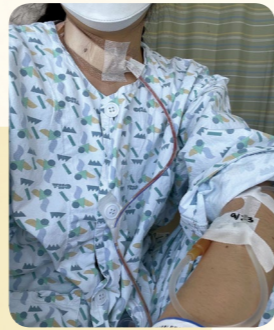
열 살 은호는 선천성 심장질환(양방단일심실)을 갖고 유독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피아노를 치거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은호는 아기 때 아파와 헤어지고 지금은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건강검진을 통해 엄마는 갑상생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9월에 수술이 긴급하게 진행되었고, 이후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엄마는 직장생활과 항암치료를 병행하려고 노력했으나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지고 체력이 떨어져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과 치료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회의 통합위기가정 지원사업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를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고,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엄마의 항암치료비와 은호의 수영, 피아노 학원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회의 지원으로 엄마의 건강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은호는 재활을 위한 수영과 평소 다니던 피아노를 계속 배울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은호 엄마는 주위의 도움으로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트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를 통해 작년 말 의료비와 아이 교육비를 지원 받은 은호엄마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저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저희 가족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출산과 아이 수술 외에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게 직장을 한순간에 그만두는 것은 너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폐함으로 제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혼자 남은 아이를 생각하니 그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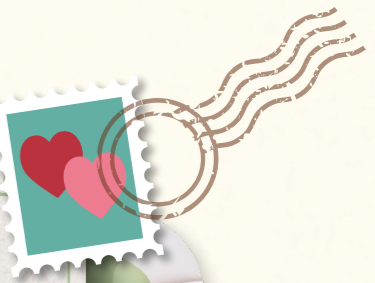
그러던 중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위기가정 아동과 가족을 돕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고, 복지사님의 도움으로 치료 중 극적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의 긴급성을 아시고 지원해 주셔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이의 교육비까지 지원해주셔서 아이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 하면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던 딸 은호의 모습을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밤마다 울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며 아이도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학원도 계속 다니고 그렇게 꿈꾸던 수영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함박웃음을 지으며 좋아하던 딸의 모습에 저도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암을 진단받고 일을 그만두었을 때 저와 제 딸은 세상의 코너에 몰려서 바람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의 지원으로 저희는 다시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내 어려움을 누군가는 관심 있게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손을 뻗는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받아야 할 치료 비용이 많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취약계층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켜주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서정기



배움과 도전으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직업훈련부터 굿즈 제작까지 한부모들의 빛나는 자립 도전기

한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은 경제자립의 바탕이 되는 직업훈련입니다. 이에 우리회는 현대홈쇼핑의 지원으로 취·창업 희망 한부모들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정규클래스와 강사양성클래스, HOLT공유공방 강사양성과 굿즈 제작 등의 수익창출지원, 정서안정을 돕는 자조모임까지 다양한 한부모자립 지원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하루하루 숨가쁘게 달려온 한부모들의 자립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 정규클래스사업보고회



▲ 정규클래스사업보고회 작품 전시

격려와 용기 전한 정규클래스 사업보고회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베이킹, 수공예, 가족공예 분야에서 취·창업을 희망하는 한부모들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한부모들은 약 15회기 동안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전문기술을 이수했고, 정규클래스의 전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교육의 과정과 결실을 돌아보는 '정규클래스 사업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규클래스를 이수한 한부모들, 클래스 강사님들, 우리회 내빈 모두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과정을 나누고 수고를 치하하는 클래스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강당 뒤편에는 수공예와 가족공예 클래스를 이수한 한부모들의 작품인 수제비누와 가족공예품이 전시되었고, 베이킹 클래스를 이수한 한부모는 손수 만든 제과로 선물을 준비해 행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수연 전 회장은 “좋은 사람 옆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며 “강의를 위해 애써주신 강사분들과 자립의지를 갖고 성실히 강의에 참여한 한부모 모두 좋은 사람이자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부모는 “직접 만든 작품을 모두 전시해보니 새롭게 느껴진다”며 “그

동안 잘 가르쳐주신 강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훌륭한 강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프님과 기능장님의 열정 넘치고 깊이 있는 강의를 듣고 이론과 실습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베이킹 수강생 한부모

“비누공예 클래스에서 처음 비누를 만들며 ‘내 가족들이 쓴다’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정규클래스를 이수한 후 비누공예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생겼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번에 저희 클래스 모두가 천연비누 전문강사 2급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강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공예 수강생 한부모

“가족공예를 접하여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보고 응용도 하게 되었습니다. 숙제를 꼬박꼬박 잘해서 완성은 했지만 예쁘게 만들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이 남은 만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재료로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공예 수강생 한부모

정규클래스를 이수한 한부모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자격증 취득 준비와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봄에 막 피어난 새싹처럼 자립의 첫 싹을 틔운 한부모들은 앞으로 홀로 서게 될 그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강생에서 강사로! 성장하는 엄마들

정규클래스로 기술교육을 이수한 한부모들을 HOLT공유공방 강사로 양성하기 위해 원데이클래스를 개설하고 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킹 정규클래스를 이수한 한부모는 공유공방에서 강사로서 베이킹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며 꿈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재료부터 레시피, 수업 진행까지



▲ 정규클래스사업보고회 현장 모습



▲ 원데이클래스에서 베이킹 수업을 하는 한부모들

직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쌓게 되었습니다.

밸런타인데이와 봄맞이 기념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며 강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간 한부모는 수강생에서 강사로 원데이클래스를 이끌어간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정규클래스는 제가 수강생으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가르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했고, 저 스스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걸 느꼈어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강의를 진행하며 경험과 실력을 쌓아가고 싶어요.”
- 베이킹 원데이클래스 한부모강사

한편, 더 많은 강사를 양성하고자 정규클래스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HOLT공유공방 강사양성클래스 ‘자격증취득반’을 개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을 취득하려는 한부모들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총 4명의 한부모들이 기능사 자격증, 전문 1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교육·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엄마들의 자조모임

클래스 운영기간 동안 한부모와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 역량 강화와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자조모임'을 진행하여 더욱 특별한 정규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처음 진행된 자조모임은 한부모들이 스스로 계획한 모임으로 자발적인 학습과 소통의 기회를 통해 역량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클래스별로 3~4명이 한 팀이 되어 각 4회기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과제빵을 사랑하는 사람들', '버블트리', '싱가포르(싱글엄마들이 하는 가족공예팀 포기하지 말고 르(느)려도 완주하는 거북이처럼 힘내자!)'라는 각자의 팀명으로 창업 강의, 원데이클래스, 뮤지컬·영화·전시회 관람, 공방 체험 등 다양한 학습·문화 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잠시나마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부모들은 자조모임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한층 밝아진 모습으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교육기술 분야 관련 자조모임 진행



▲ 한부모들이 제작한 홀트만의 굿즈들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품 '굿즈' 제작

한부모들은 지금까지 받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우리 회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굿즈' 제작에 참여하여 직접 디자인부터 바느질, 조립까지 정성을 담은 가족키링 100개를 만들어 전달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의 도움 없이 작품을 만들어본 한부모들은 "정규클래스 때는 만드는 것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배우는 것도 많다"며 뿌듯해했습니다. 또한 "정규클래스 당시에는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버거워 과제로 해오곤 했는데, 이제는 100개의 키링도 똑딱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며 이번 기회가 자신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규클래스로 기술을 배운 한부모들은 모두 입을 모아 '나눔의 순환'을 말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지원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배운 것을 사회에,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는 한부모들이 꾸준한 배움과 용기있는 도전정신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부모들의 빛나는 도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자조모임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온전히 저에게 집중하는 일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현대홈쇼핑에서 후원해주신 덕분에 문화생활을 통해 시야도 넓어지고 저를 돌아보며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저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조모임 참여 한부모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각자의 시간과 여건을 조율해가며 함께할 수 있었고 자녀들의 모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조모임 참여 한부모

"자조모임이 없었더라면 다들 바쁘게 집에 가느라 친분을 다질 수 없었을 텐데 수업과 관련된 원데이클래스도 해보고 공통의 주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들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길 들으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조모임 참여 한부모

"우리가 먼저 다가가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줄게"



학대피해 아동에게 찾아가는 '방문형 상담전용 차량' 사업

우리 회 산하시설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해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곳에서는 만 0~17세 학대 피해 아동·가족구성원·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면상담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에게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상담전용 차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상담사가 학대피해 아동의 집에 방문하여 아동과 가족을 상담할 경우 대개는 본인이 겪었던 일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집 밖에서 상담할 경우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아동학대라는 민감한 사안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스타리아 차량을 개조한 방문형 상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최적의 대안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아이와 가족이 안정감을 갖고 상담에 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내용의 비밀보장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안에는 최신 기술이 탑재된 다양한 상담모조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동물그림 그리기 미디어아트 어플을 통해 아이가 태플릿에 그린 그림을 차량 내 TV 스크린으로 보며 아이의 심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에 착용하는 스트레스 측정기로 아이가 대화하는 동안 스트레스 받는 구간과 주제를 알 수 있어 아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심적 고통을 인지하고 아동과 가족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희망을 담아 아이들에게 달려갑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기에 보호자가 동행하기 어렵거나 가정방문 상담시 상담사가 휴대할 수 있는 상담 도구 등의 제한으로 심리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상담전용 차량 내에는 모래상자, 피규어, 미술도구, 놀이도구 등이 구비되어 있어 이런 어려움을 말끔히 해결해줍니다.

학대피해 아동은 누군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편이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방문 상담차'는 그 기대를 채워줄 희망을 담아 아이들에게 달려갑니다.

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엄은성

초경의 당혹스러움을 '성장의 설렘'으로!

아동복지시설 여아 초경지원사업 '너의 처음을 함께해!'

우리 회의 초경지원사업 '너의 처음을 함께해'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초등 여아에게 친환경 여성용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보건교육'을 실시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너의 처음을 함께해'를 통해 여성용품과 보건교육을 지원받은 시설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참여 후기를 소개합니다.



▲ 보건교육이 진행된 '역촌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센터에서 몰래 생리대를 받아가요"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초경시작 연령이 10.5세 미만으로 앞당겨지고 있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부재로 월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경을 맞이합니다. '너의 처음을 함께해' 사업에 참여한 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경에 대해 가장 처음 설명해준 인물은?'이라는 질문에 40%가 '센터 선생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2차 성징을 맞이하는 소녀들에게 부모의 빈자리는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 아동복지시설 선생님과 아이들의 목소리



▲ '너의 처음을 함께해' 초경지원키트를 받은 여아들

"아이들이 친구들 몰래 센터에서 생리대를 받아가기도 해요."
-시설 선생님

"특히 아동복지시설에는 지적장애, 경계성지능장애 등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월경을 시작했으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이런 지원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시설 선생님

"생리대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생리대를 사야 할지 모르겠고 비용이 부담되어 자주 교체할 수가 없어요."
-시설 아동



▲ 이너시아·사이클린·미라룩스·라디메리 후원으로 마련된 초경지원키트 구성품 (친환경 생리대, 위생팬티, 유기농 여성청결제, 생리대파우치, 유산균 제품, KF94 마스크)

"선생님!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회의 지난 5월 28일 '월경의 날'을 맞아 친환경 생리대 후원기업 (주)이너시아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초경 지원키트 전달식'과 '찾아가는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초경키트 구성품을 소개하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청소년기 몸의 변화와 생리대 기본구조, 선택법, 교환방법, 혈액 지우는 방법 등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수업에 참여하며 부끄러워했던 아이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월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허물없이 발표해주었습니다. 아직 초경을 시작하기 전인 아이들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 기쁜 일이라며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은 2차 성징이 일어나며 쑥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교육을 통해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 찾아가는 보건교육 후기

"저에게 초경지원사업은 '선물'이에요. 꼭 필요했던 여성용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 어른 사람들을 돕는 선물 같은 사람이 될게요."
-시설 아동

"제 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월경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생리를 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 아동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축복, 응원, 격려'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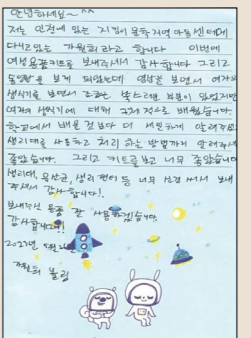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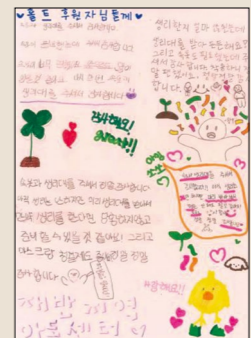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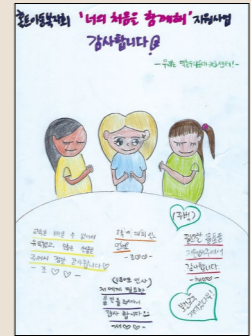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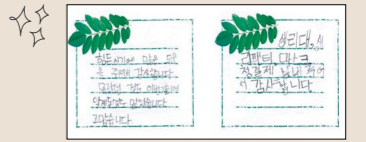
초경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초경을 준비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첫 시작은 고귀하고 설렘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첫 월경의 시작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홀트아동복지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주체, 한국소비자금융협회가 지정기탁, 사랑의 열매가 지원합니다.

글 사회공헌협력팀 이순주

아이들이 보내온 '너의 처음을 함께해' 후기



파랑새, 날개를 펴 날아오를 준비를 하다!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토크콘서트 현장 스케치



지난 4월 1일,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6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명예멘토, 자립 선배와 함께하는 ‘자립과 꿈’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는데요, 명예멘토 강도현 MC의 진행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자이언제이, 웹툰작가 궁씨,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3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자립 이후의 삶과 사회생활, 진로 등 생생한 체험이 녹아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토크콘서트의 하이라이트를 함께 보실까요?

Q1.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 많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내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A1. 누구나 꿈을 갖는 계기는 다르지만, 꿈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회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2. 현대사회의 직업관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관 또는 정체성에 맞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정성을 추구해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다양한 역량을 펼치고 배우고 도전하고 싶다면 여러 분야에 열린 유연한 직업관을 갖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니, 다양하게 도전하고 체험해보면 좋겠어요!



Q2. 자립 이후 경제관리나 자산관리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이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요!

A1. “삶은 사진이 아니고 영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삶은 어느 한 장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간다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순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난 뒤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해요. 그 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참아야 해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하겠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절제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해요.

A2. 돈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제 관련 책을 많이 읽어볼 것을 권해요. 두려움, 불안, 갈등은 주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자신에 맞는 돈 관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들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서 똑똑한 경제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A3. 퇴소를 하면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CDA), 자립수당 등을 받게 될 텐데요,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 현실감이 없어 대부분 당장 하고 싶은 것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지원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꼭 나가야 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은 별로 없어요.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겉모습,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나’라는 열매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곳에,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서 나중에 떼떽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 똑똑하게 돈 쓰는 것을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Q3. 자립하면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질 텐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건강한 취미를 갖고 싶어요!

A1. 저는 자립을 하는 과정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준비되지 않은 어수선한 상태였기에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가능한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탐색했어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죠.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여가를 보내는 방법, 취미도 저마다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으면 해요!

A2. 지금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인프라들이 많아졌어요. 지역의 인프라를 잘 활용해보세요. 저는 근처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관람하곤 해요. 무료로 미술작품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해설가들의 친절한 설명을 듣기도 하고, 공연과 축제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집에만 있기보다 운동이나 산책 등 밖에서 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폭넓게 탐색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Q4. 보호자와 대리인의 부재에서 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A1. 주변에 자립을 한 친구가 큰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보호자가 없으니 저한테 와 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플 때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어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과 친구들을 곁에 둔다면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우리에게 멘토님도 계시니까요!

A2. 나이가 들고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 커질수록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나를 완전히 대리해 줄 수 있는 보호자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연습과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Q5. 파랑새들에게 전하고 싶은 용기의 말 한 마디해주세요!

A1. 주어진 삶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저는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양하게 겪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여러분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에,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2. "어른들에게 도움 청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른들은 '자립'이라는 과정을 먼저 겪었기에 여러분이 슬기롭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바다에 배가 떠 있으려면 '돛'이 꼭 필요하듯, 파랑새 멘토님들이 곳곳에 버틸 수 있는 '돛'과 같은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은 반쪽 날개를 달고 내려온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안아야만 완벽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반쪽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면, 멘토님들이 반쪽 날개가 되어 함께해 주실 거예요. 파랑새들이 날개를 펼쳐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주세요!

사회를 향해 내딛는 네팔 여성들의 당당한 발걸음!

네팔 여성 소득증대의 디딤돌 '네팔 여성자립역량강화' 사업

네팔 홀트드림센터가 위치한 코커나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소작농을 하거나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5000원도 채 안 되는 하루 일당으로 매우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악한 생계수준은 곧 아동들의 교육과 건강, 복지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우리회는 지역 내 홀트드림센터를 운영하며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여성들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팔 여성자립역량강화 사업이란, 지역 여성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소액의 대출금을 지원하여 자본금 마련을 돕고 이를 토대로 소득증대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도움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다른 참여자들 위한 긍정적 선순환 이어져

우리회는 작년 한 해 2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들은 각각 약 28만원 정도의 대출금을 지원받아 식당·양계업·농업·재봉업·배관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홀트의 지원 덕분에 여성들은 소득을 창출하였고, 최종적으로 대출원금 상환뿐 아니라 130만 원가량의 공동 저축금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환 금액의 일부는 여성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지원되어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팔 여성들이 경제적인 역량강화를 이루어 더 당당히 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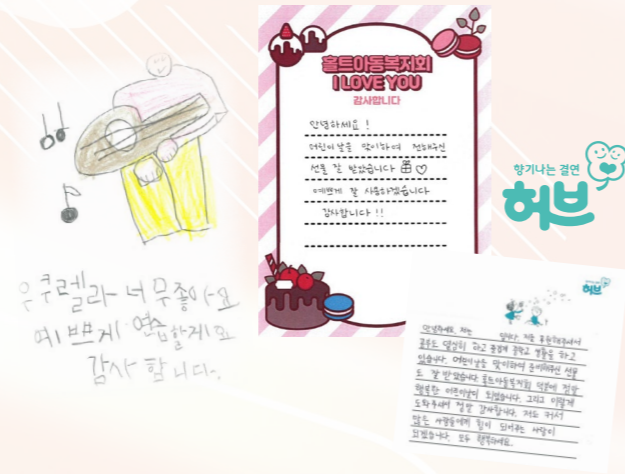
홀트 사업 참여자 라미타 트라드할 인터뷰

"저는 네팔 대지진 이후 코커나 지역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후 저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트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지원 받기 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지원금으로 가게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차가운 음료를 팔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홀트드림센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딸이 있는데, 수익이 늘어난 이후로 아이의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아이의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최고의 어린이날을 위해 준비한 5월의 특별한 선물

국내결연 '허브' 어린이날 선물 지원 이야기와
아이들의 후기

사랑으로 충만한 5월, 그중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씩씩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 회에서도 국내결연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원하는 선물을 말해봐!”

국내결연 '허브'의 지원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은 유아기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개성과 취향 역시 많이 다른데요. 여기에 맞게 이번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소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책가방, 악기, 영양제, 완구, 무선 헤드폰 등의 물품들을 선정하여 준비하였고, 아이들은 그 선물들 중 원하는 품목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선물을 골랐을까요?

선물이 도착했어요!

아이들 음악을 듣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무선 헤드폰을,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책가방을, 블록 조립을 좋아하는 아이는 레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선물로 받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후원자님 덕분에 최고의 어린이날이 되었어요!”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국내결연을 함께해주는 후원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향기나는 결연 '허브'는 저소득, 미혼한부모, 다문화가정의 아동, 그리고 장애아동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료비·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글 사회공헌협력팀 김호인

몽골 아이들에게 전해진 나눔의 기쁨

한부모들의 사랑이 담긴 '토이 비누' 제작과 나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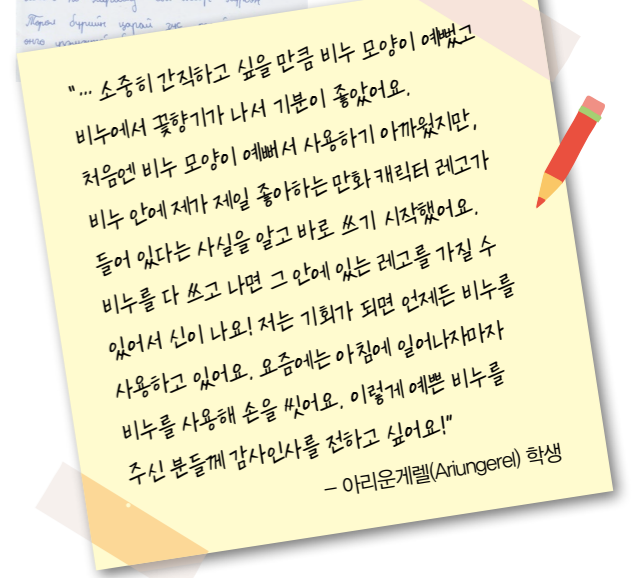
비누 수공예 정규클래스를 수료한 한부모들이 HOLT공유공방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 것인데요. 한부모들이 제작한 '토이 비누'는 받은 사랑을 나누려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 몽골의 홀트드림센터 친길테 지역아동센터에 전해졌습니다.



홀트드림센터가 있는 몽골지역은 게르촌으로 아이들이 동네 우물까지 걸어가 오염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그만큼 위생에 매우 취약해 아이들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 예방은 손 씻기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한 한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손 씻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토이(레고) 비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누 안에 레고 장난감을 넣은 것인데요, 즐거운 손 씻기를 통해 위생과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엄마들은 비누를 만들며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향을 더해주는 에센셜오일을 듬뿍 넣는 등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총 2주에 걸쳐 제작한 200개의 비누를 꼼꼼히 포장해 몽골 친길테 지역아동센터로 발송했습니다.



한부모 엄마들은 “도움을 받기만 하다가 주는 입장이 되어 뿌듯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몽골에서 비누를 전달받은 아이들로부터 사진과 감사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비누 제작부터 나눔까지 함께한 엄마들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며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홀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지원센터는 한부모 엄마들이 자립해 당당히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박혜정

홀트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소중한 후원자들과의 특별한 하루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열린 ‘홀트가족 나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봄벌이 따스한 지난 5월, 우리 회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 기간 홀트의 가족으로 함께해준 후원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후원자 모임 ‘해피홀트데이’는 설립자 해리 홀트 부부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시작된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홀트가족 나들이’로 개최 되었는데요, 설립자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참가자 모두 즐겁고 뜻깊은 한때를 보냈습니다.



후원자들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영훈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 우리 회 김정오 이사장과 린다 백 이사가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한 후원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랜 기간 홀트와 함께한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는데요, 1977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박배근 후원자가 후원자 대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실천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배근 후원자는 1977년 당시의 홀트 소식지와 결연 아동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직접 보여주며 홀트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홀트기념관에 전시해도 손색이 없을 듯한 귀한 자료를 보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후원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순서로 스티브 모리슨 이사의 영화 같은 이야기 ‘나의 기억 속의 홀트 할아버지’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일산요양원에서 여섯 살 때부터 홀트 부부와 함께 생활하다 열네 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스티브 모리슨 이사는 입양 전 다리 수술 후 깁스를 하고 돌아온 자신을 해리 홀트씨가 두 팔 벌려 안아주었던 기억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홀트의 후원자들에게 홀트 부부의 헌신적 사랑을 증언하는 모리슨 이사의 강연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후원자들의 나눔 이야기

2부는 홀트학교 장애학생들의 예그리나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멋진 공연을 펼쳐준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공연 후에는 후원자들의 나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꾸준한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 최고령 후원자부터 어머니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모녀 후원자, 홀트 장학생이었다가 이제는 후원자로 함께하는 후원자까지 선한 영향력을 펼쳐간 후원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후원자들은 홀트 하면 "사랑, 배움, 나눌수록 행복한 곳"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말과 함께 "혼자가 아니니 힘내세요. 많은 후원자들이 응원하고 기도해줄 거예요!"라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주었습니다.

한 후원자는 "그동안 살면서 후원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해보니 후원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그들이 사회의 가장 앞자리에서 대우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환영 인사 중인 김정오 이사장과 린다 백 이사



▲ 포토존 앞에 선 모녀 후원자



▲ 주영훈 홍보대사와 박배근 후원자

▲ 홀트 나들이에 참석한 후원자 가족들

변화하는 가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홀트일산복지타운 기관 소개와 라운딩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보호작업장, 홀트기념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 홀트 가족 묘소까지 직접 돌아보며 현장을 눈에 담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한 후원자들의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 방' 팬덤 기부 1호 탑리더스 위촉

“나눔의 선순환으로 아름다운 팬덤 기부문화 확산되길”



지난 6월 9일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나눔의 방'이 홀트 고액기부자 탑리더스 팬덤 1호에 이름을 올리는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국내·외 50여 명의 팬클럽 회원이 모여 기부활동을 시작한 '영웅시대 나눔의 방'은 온·오프라인으로 가수 임영웅을 응원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스타를 빛내고 있습니다.



뜻깊은 일에 함께하는 기쁨과 감동

“기부금 전달식 참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올 때마다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뜻깊은 행사를 위해 연차까지 쓰고 편도 4시간 버스를 타고 왔어요. 가수 임영웅도 좋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선행을 실천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뻐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바로 1978년생인 저입니다(이효순 후원자). 주로 제 어머니 연배인데, 가수 임영웅님이 주는 위로 덕분에 우울증을 이겨내고 팬클럽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찾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며 저도 즐겁게 활동하고 있고요.”

“지난해 임영웅님 생일 기부 전달식에서 탑리더스가 뭔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좋은 뜻에 함께해주신 나눔의 방 회원님들 덕분에 탑리더스로 위촉되어 가슴이 벅차옵니다.”

팬클럽 1호 탑리더스 위촉 소감을 밝힌 '나눔의 방' 회원들은 “이번 모임이 다섯 번째 나눔 참여”라며 “오늘 전달식은 임영웅님의 생일(6월16일)과 데뷔일(8월8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행사이기도 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영웅시대 나눔의 방'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위기가정 아동과 가족을 돕기 위한 긴급키트 지원과 생계비·의료비·교육비·심리치료비 등 가족을 지키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그 밖에도 2020년 코로나19와 무더웠던 여름에 누구보다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선풍기와 마스크를 후원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후원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에는 '영웅시대 나눔의 방'이 함께 이룬 기적을 살피며 아동과 가족을 돕는 의미 있는 홀트의 사업에 따뜻한 격려를 보내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동의 눈물을 보이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탑리더스 팬덤 1호 위촉의 특별한 의미

탑리더스 위촉식에 참여한 한 팬클럽 회원은 “영웅시대 나눔의 방 활동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다”며 “소통을 위해 개설된 단체 메신저 방이 1년이나 갈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처럼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면서 지금은 친구 이상의 관계”라고 귀띔했습니다. 그 말 속에서 팬클럽 회원들의 신뢰와 우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행복한 팬클럽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회원들도 있었는데요. 한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TV에서 노래하는 임영웅의 모습을 보고 빠져들었어요. 임영웅 팬클럽이었던 제 아들이 팬클럽에 가입도 시켜주고, 인터넷 사용법도 알려주어 이제는 카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탑리더스 위촉식과 위촉기념 굿즈 전달식에 이어 홀트아동복지회 법인 차량에 가수 임영웅의 33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데뷔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영웅시대 나눔의 방' 팬클럽 기부 래핑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래핑된 차량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임영웅이 활동했던 흥대거리, 소속사까지 드라이브하며 위촉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래핑된 차량은 두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누빌 예정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은 “팬클럽 탑리더스 1호 위촉이 나눔에 앞장서는 팬덤기부 소식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더욱 특별하다”며 “가수 임영웅님의 팬클럽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웅시대 나눔의 방' 회원들의 나눔활동이 팬덤 기부문화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 탑리더스로서 멋진 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한땀한땀 서툰 바느질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큰 발걸음으로

세방그룹 임직원과 함께하는 핸드온 봉사활동 북커버 만들기

지난 5월과 6월에 세방이의순재단과 세방그룹 임직원들의 참여로 위기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 '나를 지켜주세요' 핸드온 봉사활동 '북커버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북커버가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설명을 들은 참여자들은 비록 서툰 바느질이지만, 더욱 예쁘게 만들어보겠다며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위기가정 아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한 봉사활동 현장을 소개합니다.

세방그룹 창업주 이의순 명예회장이 2007년 사회환원을 위해 설립한 세방이의순재단은 저소득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과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우리 회와 세방이의순재단의 인연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위드유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양사가 협약을 맺은 것이죠. '위드유 커뮤니티'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과 사회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동아리활동, 자기계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드유 커뮤니티' 후원에 이어 지난 5월과 6월에 세방이의순재단과 세방그룹 임직원들이 위기가정 아동 지원 캠페인 '나를 지켜주세요' 핸드온 봉사활동 '북커버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는 걱정에 조금 막막했지만, 바느질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또는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영상을 보며 천천히 따라하다 보니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라

안녕? 너의 앞날을 응원하고 기도할게.
항상 행복하고 밝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파이팅!

너의 미래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길 응원할게!

는 소감을 전하며 완성된 북커버를 들고 뿌듯해했습니다. 이어 북커버와 함께 아이들에게 전달될 응원 메시지도 작성했습니다. 위기가정에 놓인 아이들을 함께 지키고 응원하기 위한 핸드온 봉사활동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나눔기획팀 옥지희

책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북커버처럼 너의 북커버가 되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줄게. 너의 미래를 응원해!



☆ 디어패밀리박스3 북커버 만들기 '나를 지켜주세요' 참여 방법

Dear Family Box 3 : 북커버 만들기
“나를 지켜주세요.”
위기가정아동지원 캠페인



위기가정을 지키고 응원하기 위한 핸드온 봉사 캠페인 북커버 만들기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소재부터 제조과정까지 환경을 고려하여 기획된 캠페인입니다. 낡은 가족을 재생산한 자투리 가족 소재를 사용하고 가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물을 절약하는 건식제조 방식으로 환경 보호 인증을 받았습니다. 참여자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북커버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참여기금은 위기가정 아이들의 생계·의료·주거·교육·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업임직원 봉사, 동아리활동, 개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 신청하기(문의사항은 02-331-7144, 7147로 연락주세요)



HOLT NEWS

본부

KB손해보험, 한부모가정 아동지원 후원금 전달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여 KB손해보험과 함께 한부모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돕는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10년째 '아동의 생명을 365일 건강하게 지킨다'는 마음으로 2,230개 한부모가정에 초기 양육물품과 학령기아동 교육용품을 지원해왔습니다.

한국스파이렉스스코, 자립준비청년 대학교육지원사업 협약



5월 19일 우리 회와 한국스파이렉스스코는 자립준비청년의 대학교육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홀트서기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에게 교육비, 면접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IBK기업은행, '청년 금융바우처' 업무협약 체결



6월 27일 우리 회와 IBK기업은행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하는 '청년 금융바우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2014년부터 미혼한 부모 자립 지원과 소외계층 정보화기 지원, 장애인가정 청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5년부터는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금융바우처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은행과 함께하는 드림스케치'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DMK 중형 생일기념 자립준비청년 후원



DKZ 중형의 생일(4월 13일)을 기념하여 스타의 팬들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후원금을 전해주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따뜻한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해진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3 홀트 전국후원회 이사회 개최



4월 14일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전국후원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12개 후원회 회장단이 모여 올해 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방안을 논의하고, 서울후원회 5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올해 전국후원회 후원기금은 장애인 휠체어 농구단 지원과 통합위기지원사업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의 사업비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청지부

제18회 입양의날, '참 행복한 우리가족 나들이'



5월 13일 제18회 입양의날을 맞아 대전광역시 주최,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지부와 공동 주관으로 대전오월드에서 '참 행복한 우리가족 나들이'를 실시했습니다. 대전·충남북 지역 350여 명의 입양가족들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양가족들에게 기념품 등을 후원한 대운인터컨, 홀트대전후원회, 동행, 굿네치킨에 감사드립니다.

춘천시가족센터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5월 19일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구연동화로 듣는 다문화, 문화체험 존, 베트남 전통모자 농 만들기, 포토존 등 각기 다른 문화를 배우는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상호 교류하며 서로 공존함으로써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이동 또래관계 및 사회적 향상을 위한 C(cook), P(play), R(Reality) 실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또래관계가 어려운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2년째 C.P.R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푸드레시피), P(놀이활동), R(현실 속으로-자기조절능력 향상교육)'의 세 가지 분야로 진행되며 아동들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여 원활한 또래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민락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TM라이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TM라이프'는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사업입니다. 올해는 민락동행정복지센터 및 민락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별화된 멘토멘티제를 활용하여 현재 총 18명의 어르신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봉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맞이 기념행사 개최

5월 8일 지역 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 417명에게 무료중식과 기념품을 전달할 것을 물론, 시상송·미술공연·노래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르신과 주민들 모두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의 배식 봉사과 부산진로타리클럽의 생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한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 은혜孝心서트' 진행

5월 8~9일 지역 내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하여 '어버이 은혜孝心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남시 관내 아동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

HOLT NEWS



고 '국악양상블 초아'와 '하남우리소리예술단'이 축하공연을 펼치며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운들

안성팜랜드 나들이



4월 7일, 고운들 가족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팜랜드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동물 먹이주기 체험과 열차 탑승 체험 등에 참여하며 엄마와 아기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봄꽃, 나무와 함께한 행복한 4월 나들이였습니다.

아름들

행복한 제주여행



아름들 식구들은 5월 31일~6월 2일 2박3일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바다와 싱그러운 곳자왓 산책, 산방산 유람선, 상효원, 아르떼뮤지엄 관람으로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숙소, 맛있는 음식, 즐거운 물놀이로 아름들 가족 모두 여유롭고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아침들

아침들-(주)하이팩프씨 업무협약식 진행



5월 9일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아침들과 (주)하이팩프씨의 후원업무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이팩프씨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대전광역시의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들에게 대마종자를 이용한 리팩트 제품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클로버

'긍정적인 아이 키우기' 부모교육 실시

긍정적인 아이 키우기란 주제로 9회기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엄마됨'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역할 및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가족 내 구성원의 역할과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훈육방법을 배우으로써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대전클로버

미혼한부모 인식개선 옹행사 공모전 개최



개원 15주년을 기념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행복을 응원하고 한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전클로버' 옹행사 짓기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후원자님!

환경을 위해
'홀트소식 온라인
수신 전환'에
동참해 주세요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1. 홀트 카카오톡 '채널 추가'로 홀트의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아래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전화해 수신방법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채널로 홀트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와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해외 빈곤아동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더 큰 가족,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홍보채널 안내

홀트가 진행하는 다양한 후원사업과 행사 안내 및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의 소식을 QR코드를 통해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홀트아동복지회 blog
blog.naver.com/sayholt



YouTube
youtube.com/loveholt



Instagram
instagram.com/holt_welfare



카카오톡 채널
@홀트아동복지회



장애인 지원 캠페인

RE-PLAY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이는 일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후원문의 · 02-331-7073~6 · www.holt.or.kr

홀트아동복지회는 1961년부터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 재활치료와 시설보호,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새 이름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신사옥



HD현대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눔기업입니다.